

지방자치·국제

■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정수장학회 “박근혜 명의 장학금은 선거법 위반”
성범죄대책 “경찰·법무부 정보 공유 엉망” 질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박근혜에 대한 후보를 겨냥, 박 후보가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 문제를 맹공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18대 대선 공표 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문제와 관련, 관련 부처장관들을 상대로 집중 질의했다. 또 최근 잇따른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 등과 관련,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정수장학회 맹공=민주당은 정수장학회가 개인재산 감탈에 의해 만들어진 만큼 사회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그동안 자신과는 관계없는 공익 재단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민주당 노영래 의원은 “정수장학회가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바탕으로 이들 언론사를 계열사처럼 운영 중”이라며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부한 금액은 271억3000만원이지만 이 금액 중 정수장학회가 장학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263억3000만원”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철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제시한 뒤 “정수장학회는 2000년 2월 28일과 2004년 2월 26일 ‘정수장학회 이사장 박근혜’의 명

의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했다”며 “2000년 4월 13일과 2004년 4월 15일 각각 총선 시 치러졌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 행위는 공익법인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간 후보자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주면 기부 행위가 해당한다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정확하게 어떤 사실을 전제해 알지 못한다.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협의가 있다 없다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대책 요구=여·야는 강력 범죄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면서 범죄 예방 인프라 구

축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 공유도 안 하고 있다”며 “두 기관이 공조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성폭력 범죄예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2012년도 경찰 일반회계 세출 7조9326억원 중 범죄예방 예산은 436억원으로서 0.54% 불과하다”라며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498명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편”이라며 범죄 예방 인프라 부족을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어른되면 꼭 투표 할게요~”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계림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초등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투표과정을 체험하는 ‘키즈 보팅(Kids voting)’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 행사는 연말 대선과 동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은 민주주의 중요한 상징”

■ 광주 찾은 주한 앵데사 스콧 화이트만

스콧 화이트만 주한 영국대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투쟁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중요한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화이트만 주한 영국대사는 11일 오전 8시 30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를 처음 찾은 스콧 대사는 헌화·분향하며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그는 윤상원 열사, 박관현 열사, “시설 구조변경과 리모델링 등으로 수용규모를 확대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열사와 5·18 광주 민주항쟁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유영봉안소를 참배한 스콧 대사는 “광주는 민주주의와 자유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도시”라며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 밖을 나서 이곳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 민주항쟁은 다른 국가에게도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중요한 상징”이라며 “민주화와 인권은 세계적인 공유해야 할 가치고

한국과 영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1시간 가량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스콧 대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한 후 강연대 광주시장과 오찬을 갖고 광주 유니버시티에 조지위원회와 찾아 런던 올림픽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강연을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中-日, 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갈등 격화

日, “국유화 공식 결정”... 中 “양보없다 영해기선 설정”

일본이 10일 다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공식 결정하자 중국이 전격적으로 다오위다오의 영해기선을 선포했다. 이는 다오위다오가 중국 영토임을 공식화한 의미여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중국이 다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오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다오위다오의 부속 해역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영해기선을 설정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중국은 이날 정부 성명 형식으로 다오위다오의 영해기선을 선포하고 향후 다오위다오 해역에서 상시적인 감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감시선과 어업지대선을 다오위다오 해역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중국 선박을 막으려는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의 충돌이 불

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다오위다오 국유화 소식이 전해진 후 공식 성명을 내고 “결연한 반대”와 “강렬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소위 ‘국유화’라는 것은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성명에서 “소위 ‘국유화’라는 것은 중국 영토 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연합뉴스

남도학속 수용규모 확대
광주시 리모델링 등 검토

광주시는 남도학속 수용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광주시 정민근 자치행정국장은 11일 남도학속 확대 운영에 관한 진신경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남도학속의 용역률이 서울시 건국기존을 초과해 현 부지에선 증축이 어렵다”며 “시설 구조변경과 리모델링 등으로 수용규모를 확대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남도학속을 신축하면 400억원에서 800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전남도와 협의를 거쳐 기업체의 후원금과 사·도민 지원 자금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 출신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인 남도학속은 지난 1994년 신축돼 현재 810명(남 444명, 여 366명)의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외교부, 독도 영유권 예산 42억 편성

日정부 공세 적극 방어

외교부가 예산 당국과 협의해 독도 영유권 사업의 예산을 42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따르면 외교부가 주관하는 ‘독도 영유권 공회화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42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는 올해 예산(23억2000만원)보다 81% 늘어난 액수다. 예산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은 독

도를 분할지역화하려는 일본 정부의 공세를 우리 정부가 적극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국제사회에 홍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영토문제 대책비’의 내년도 예산(4억원)에 ‘독도문제 국제홍보비’ 6억원(8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신문 광고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강기정 의원, 은행대출 가산금리 공시 추진

민주통합당 강기정(북구 갑) 의원은 11일 은행의 가산금리 책정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공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은행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은행이 임의로 신설해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은행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 공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개정법안은 기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내기기준으로 자율 운영하던 시 가산금리 산정 항목을 부당하게 신설하거나 요율을 부당하게 인상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리는 데 대해 제동을

걸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총장공(덕령)의 억울함이 1661년(현종2년) 이단하의 상소로
신원되고 관직이 복구된 이후

- 1. 1668년(현종 9년, 강희 7년) 4월 병조판서에서 가증되고
- 2. 1678년(숙종 4년) 벽진서원에 배향되고
- 3. 1680년(숙종 6년) 자헌대부병조판서 가증되고 벽진서원을 의열사로 사액 받음.
- 4. 1712년(숙종 38년, 강희 51년) 11월 친왕 정비리 전방자손 각별 녹용사 언수 양전 전할조 입사 각별 백의사 분부.
- 5. 과학생 김수신 위장사람 북부참봉자, 강희 51년 11월 (김덕령의 봉사손 채용)
- 6. 1713년(숙종 39년, 강희 52년)정월 이조 강희 52년 정월 초 10일방 교장사람 북부참봉 김수신 위장사람 행북부참봉자, 강희 52년 정월.
- 7. 1713년(숙종 39년, 강희 52년)정월 선진신 송시열 송준길, 의 손자 및 의빙장 김덕령과 순절인 변용정 등을 봉사할 사람이 정사에서 주의 받는데 이르러서는 무슨 의심할만한 것이 있기에 이따따 동성을 의망했다고 하고 사사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임과 원랑의 장서는 업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비록 본조당량과 같은 국선이라도 으레 혼자 통의하는 일이 많았는데 옥서와 국자는 무슨 구에 뵈어 있었습니까.
- 8. 임금이 우악한 비담을 조목별로 논한 것이 명쾌하다 할만 하나 사출하는 것도 넉넉히 죄를 정제할 수 있는데 어찌 죄를 더하겠는가.
- 9. 1714년(숙종 40년, 강희 53년) 7월 4일 교지 김수신 위장사람 북부참봉자, 강희 53년 7월 초 4일
- 10. 1714년(숙종 40년, 강희 53년) 교지 김수신 위장사람 북부참봉자 강희 53년 7월 초 8일
- 11. 1788년(정조 12년, 건륭 53년) 4월 6일 자헌대부 병조판서 가증되고 김덕령의 시호를 총장공으로 내림.
- 12. 1788년(정조 12년, 건륭 53년) 11월 15일 판서안 이회리(구 석계촌)를 충효리로 개칭하고 정려각에 유명조신공 승정대부 의정부 좌참찬 시 총장 행통정대부 승승원 승지 충효장공 김덕령 은륜비(윤윤) 중 경정부인 홍양이씨 충효지리.
- 13. 1789년(정조 13년, 건륭 54년) 4월 상인에 대한 관문은 예조가 이회리를 총장공 김덕령에게 시호가 내리고 제사가 내림으로 신주를 만들어서 예를 행하였습니. 전교하시기를 예에는 경도도 있고 권도도 있다 전례를 참고하면 상삼문과 김전일등의 일이 의기할 단서가 될 것이다. 사은이 없는 경우에 주제자를 정하여 주는 것은 그연에가 많았다 특별히 그 문종으로 제사를 주관할 사람을 정해서 향화가 끊지 않게 하라 하사했다. 하고 부조지전 관하 하사했다.
- 14. 총장공(덕령)에 대한 은전
- 15. 1712년 11월 총장공(덕령)에 대한 비조가 산문가의 봉사손인 김수신(별정공)으로 발명됨.

- (나) 1788년 총장공(덕령)에게 시호를 총장공으로 내림.
- (다) 1788년 총장공(덕령)의 부인 경정부인으로 가증되고 충효지리로 됨.
- (라) 1789년 총장공(덕령)의 부조지전으로 특명문종으로 관하됨.
- (마) 1792년 총장공(덕령)의 형제가 자란 마을에 생계를 오두로 바꾸도록 어명됨.
- (바) 1796년 총장공(덕령)의 어제 서문으로 유자진 간행됨.
- (야) 1970년경 광주일보사 김갑환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사 건립에 대한 건의로 보조금으로 사단법인유척보존회를 설립하고 총장사를 건립 하였다.
- 14. 위와 같이 사실관계로 총장공(덕령)의 문종은 (가) 총장공(덕령)의 묘지 동기명칭은 판서김재충장공파문종으로 하고 (토지등록번호 111120-2413485 토지는 없음)
- (나) 총장공(덕령)의 특명 주사손인 김수신(별정)의 묘지 동기명칭은 판서김재충장공파문종으로 하고(토지는 국한)
- (토지등록번호 111120-3603134)
- (다) 총장공(덕령)의 문종 토지는 1910년경 개인명으로 신락동기 하고 1937년 경에 판서김재충효종중 명칭으로 동기 명의변경 되었습니다.
- (토지등록번호 111120-3603126)
- 15. 위 사실관계로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2759 및 2000가합412호 광주고등법원 2001나4543호 및 대법원 2002다22250호 각 중등총회파문종 사건 원고 김진규 피고 김기진과 소의 김창호 등, 원고는 판서김재충장공파문종의 별칭인 별정공파, 성안종중, 충효종중 등 명칭으로 호칭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김기진과 소의 김창호 등은 사실확인서로 판서김재충효종중 명칭이 일명 판서김재충효종중으로 주장되었으나 원고 주장대로 판결 되었습니다.
- 16. 판서김재충장공파(별정공파, 충효종중) 문종의 1994. 7. 4일자 회의록을 김창호가 조적으로 작성하고 광주지방법원 95가단9674호 토지소유권이 전동기 말소등기 사건에 제출되고 광주지방법원 99형제17988호 사건에 김기진, 김창호등이 기소되고 위 법원 99고단2834호 사건 피고 김기진, 김창호등이 실형 선고되고 1994. 7. 4일자 입수된 회의록 위조부분 폐기판과 같은 사실에 따라 중등총회를 소집한 후 같은해 7. 13 이사회에서 결의되었던 사항의 동의 받아 이 사건 중등 소유이던 광주 북구 청동동 163-1 입야(65,197㎡)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한 다음 금 3000만원 대출받아 중등을 위해서 민사소송 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 없어도 원고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의 배임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그곳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판시 되고, 판서김재충장공파문종 김창호의 34세손인 별정공 김수신을 중 시조로 하여 1980 이전까지 주로 광주 북구 충효동 지역에 거주하여 왔으며 별정공파중종, 성안종중, 충효종중으로 불리기도 한다 피고인(김진규)은 1981년 경부터 1987년 경까지 중등 도유사 직무를 수행하다가 1987. 12월 중순 김희석이 도유사로 선출 되었으나 그가 도유사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1989. 3. 1일경 도유사 직무를 사퇴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중등의 도유사 직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김기진이 1994. 7. 4일경 임의로 총회를 개최하여 중등 21명 밖에 모이지 않은 가운데 선출되게 되면 시 중등원들 간에 재산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판시 되었으며,
- 18.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21362사건은 광주 북구 충효동 406-1번지 임야(대밭) 2,9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는 소송에 원고 판서김재충장공파(별정공파, 충효종중) 공동대표 김진규, 김이규, 피고 박진자, 위 사건 판결시 일부에 김수신(별정공 시조의 34세손)의 아들 중 김형복, 김영이, 김영진(35세손)의 각 후손들과 위 김수신 동생 김수은의 손자인 김달명(36세손)의 후손들 중 과거계를 조직 하고 판서김재충효종중 이라고 불리었다가 판서김재충효종중으로 불리었다고 판시하고 그러나 위 김수신의 후손들은 별정공파중종으로 하고 위 김수신 동생 김수은의 후손들은 대대중종으로하고 위 김수은의 손자 김달명(36세손)의 후손들은 서운공파중종으로 각 호칭하고 있기에 위 김수신의 아들 35세손과 위 김수은의 손자 김달명(36세손)의 후손들과 판서김재충효종중(중과가 다른 35세손과 36세손 간에) 명칭으로 구성할 수 없고, 그 증거 없으면서 위 김기진, 김창호등의 범인에 의한 제적으로 각하 판시되고,
- 19. 광주지방법원 2009나333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판서김재충장공파중등 김형복 김진규, 김이규 피고 박진자 위 사건 판결시 일부에 1981년경 중등 20여명이 김진규를 도유사로 추대하고 위 김진규는 1981. 9. 15 일경 원고 중등 총회에서 중등 20명 서명날인 받아 판서김재충장공파문종 김창호 등 1982. 8. 15일 규약 개정하여 문규를 작성한 다음 김진규, 김기진등 12명의 서명날인 받아 공증 하였다, 라고 하고 2001. 8. 25일 원고 중등 인사총회에서 1982년 중등규약을 개정하였는데 당시 원고중등의 명칭을 판서김재충장공파에서 판서김재충장공파(성안문종, 충효종중, 별정공파) 문종으로 인사총회는 필요할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인사총회는 대표자가 총무와 협의해서 일자를 정한다로 개정한다 라고 위문규는 대표자 김진규의 소제에 의한 문규로 되었으며, 또한 위 김진규가 1987년 이후 도유사를 그만둔 뒤 김희석이 도유사로 선출되었으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자 1989년 경부터 사실상 도유사 역할을 해오던 김기진이 1994. 7. 4 일자 회의록은 검찰에서 입수되고, 법원에서 폐기판이라고 된 것으로 법원에 의한 제적으로 각하 판시 되었다.
- 20. (가) 광주 서구 금호동 산52번지(불한철) 5층6단3부 중 약 1만평이 총장공파 문종 김대명, 김윤식, 김서숙, 김경숙 등이 1921년 사정등기와 1933년 위 4인이 보존공과 하고 위 김대명, 김윤식, 김경숙등이 1974

년 이전 각 사방하고 참의공 종인 김희수가 위 땅 상대로 소송제기 되고 광주지방법원 76가합490호로 동기명의 변경되고 그 이후 위 김희수가 동기명의 변경해 주겠다고 그 증거로 이영우 사법사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어서 김진규, 김남호에게 주고, 위 법원 95가단9674호 사건으로 위 참의공종인 김경준이 김진규를 고소하고 광주지방법원 96형제18616호 사건에 피고소인 김진규는 혐의 없으므로 처리되었으나 95가단9674호 사건에 참의공 종인 김희수, 김관규와 총장공파 김기진, 김창호, 김윤규, 김한규등이 위 참의공 토지 라고 위 김기진이 중언 하였고 원고가 패소되고 총장공파문종은 시가 약40억원 피해 되었습니

- (나) 광주 북구 청동동 산163-1번지 65,197㎡를 근저당권 설정판결로 총장공파 김기진의 3인이 배임죄로 김진규를 고소되고 그 사건에 무죄판결 되었으나 광주지방법원 2002가단72885호로 원고 김승규가 피고 판서김수신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 소송제기하고 그 판결로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위 판서김수신은 총장공파 대표 김진규, 김기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로 위 법원 2005가단6056호 사건에 위 판서김수신에게 소송하고 위 법원 2006타정3651호 사건에 경매되고 위 총장공파문종은 시가 약3억원 피해되었습니
- (다) 판서김재충장공파(충효종중) 토지 담양군 남면 정곡리 산124번지 임야 185,950㎡를 2010. 4. 9일자 30년간 지주 무료 김창호(39)1210-159112가 판서김재충효종중 대표자로 주식회사 대동농수산 대표자 김윤경에게 30년간 설정되어 있으나 광주 북구 충효동 498번지 거주자 김기호 설명에 의하면 1억5천만에 매도 되었다고 설명 사실이 있습니다 위 총장공파문종은 시가 약1억원 피해되었습니
- (라) 광주 북구 금곡동 답 896번지 296㎡는 1936년경 총장공파문종 김성문이 보존등기하고(김백인계 가공 이름 등기하고) 1979년 위 문종 김창규로 동기명의 변경되었으나 참의공종인 김경관과 총장공파 김기진과 결탁하고 참의공종중 토지라고 제판해서 매도 되었기에 총장공파문종은 시가 약2억원 피해 되었습니다.
- (마) 판서김재충장공파(충효종중) 문종 토지 광주 북구 충효동 405-2번지 대지 약 107평 시가 약 2억원과 북구 충효동 406-1번지 임야(대밭) 2953㎡ 시가 약 2억원등 위 문종 김윤규, 김창호가 판서김재충효종중 대표자 행세하고 위 문종은 시가 약4억원 피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토지가 불법으로 매매된단일 근저당권 및 법원을 기만한 행위로 총장공파문종에서 피해가 되었기에 사법당국에서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2일
총장공파문종
대표 김진규, 김이규 · 총무 김중훈